

BBQ,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 법원 “bhc, 71.6억원 배상하라”

“bhc 계약위반·부당이득 편취”  
BBQ “재판부 판결 존중”  
bhc “판결문 검토후 항소”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날 BBQ 측은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

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며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bhc는 금일 판결에 대해 계약위반 이유의 손해배상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BBQ의 과도한 정산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JW중외제약, 혈우병치료제 국내효과 입증

‘헴리브라’ 한국인 출혈감소 확인

JW중외제약은 중증 A형 혈우병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헴리브라’의 실제 처방 데이터 연구에서 출혈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한승민 연세대의대 교수는 지난 9월 3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제41차 한국혈전지혈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대상의 ‘헴리브라’ 투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연구에서는 헴리브라의 출혈 감소효과가 입증된 바 있지만, 국내 환자 실제 처방 데이터로 헴리브라의 출혈 감소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교수팀은 강동경희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국내 4개 혈우병 진료 전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대상은 기존 혈우병 치료

제에 내성을 가진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중 6개월 이상 헴리브라를 투여한 15명이다.

연구 결과, 헴리브라 투여 후 연평균 관절 출혈 빈도(AJBR)는 소아와 성인 각각 0.48, 0.90을 기록했으며 성인의 66.7%, 소아의 50.0%가 출혈을 경험하지 않았다. 연평균 출혈 빈도(ABR)도 투여 전보다 유의하게 개선됐다. 헴리브라 투여 전 ABR은 14.9였으나 투여 후에는 1.84로 크게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소아군(1.4~14.0세)이 8.33에서 1.16으로, 성인군(20.6~48.3세)이 19.3에서 2.29로 개선됐다.

헴리브라는 스위스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자회사인 일본 주가이제약이 개발한 A형 혈우병 치료제로, JW중외제약은 지난 2017년 국내 개발 및 판권을 확보해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이세경 기자

# 길로연구소-메드팩토 ‘공동연구 성과’

# 세계 최초 위암세포 간 전이 기전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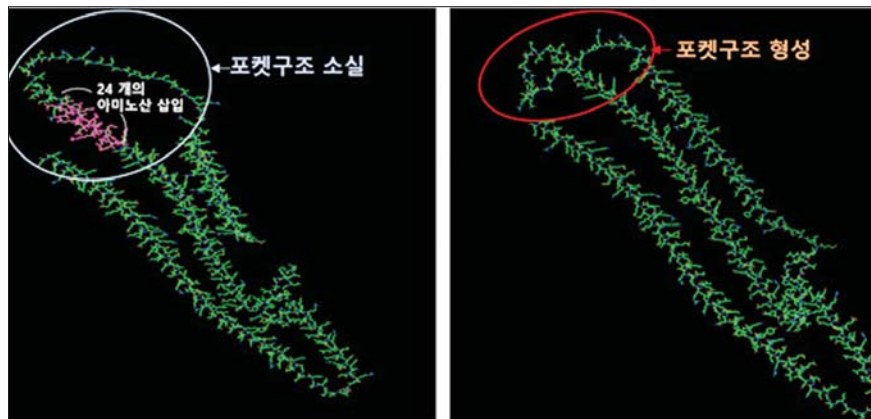
네이처 온라인 자매지에 게재  
LRRFIP2 단백질 발현 양 따라  
간 전이 억제 치료제 개발 기대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위암 세포의 간 전이를 조절하는 새로운 단백질 발견했다.

3일 메드팩토에 따르면 김성진 메드팩토 대표가 연구소장을 겸임하는 재단법인 길로연구소(이하 길로)는 메드팩토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LRRFIP2 단백질이 위암세포의 전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의 온라인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10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위암세포에서 LRRFIP2 단백질의 발현 양에 따라 위암 환자의 간 전이 여부를 예측해 향후 위암 환자의 간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이성(왼쪽)과 비전이성 위암세포에서 발견된 LRRFIP2의 구조 차이.

전이성을 가지지 않는 위암 세포에서 발견되는 LRRFIP2 단백질은 암 성장과 전이를 유도하는 CARM1 단백질에 결합하여 CARM1 단백질의 전이 능력을 억제한다. 반면, 전이성을 가진 위암 세포에서의 LRRFIP2 단백질은 CARM1 단백질과의 결합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연구팀은 전이성을 가진 위암 세포에서 발견되는 LRRFIP2 단백질은 전

이성을 가지지 않는 위암 세포의 LRRFIP2 단백질과 달리 24개의 아미노산을 만드는 7번째 엑손 하나가 삽입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이 작은 엑손의 삽입이 LRRFIP2 단백질의 구조 변화를 가져와 CARM1 과의 결합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전이성을 가진 위암 세포에서 LRRFIP2 유전자의 엑손 7을 유전자 가위로 제거하면 이 위암 세포의 간 전이가 현저히 줄었다.

또 연구팀이 위암환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엑손 7 부위를 가진 LRRFIP2 단백질이 높게 발현된 위암 환자들은 전체 생존기간도 짧았다.

이번 연구로 향후 위암 환자에서 LRRFIP2의 엑손 7 mRNA의 유무를 조사하면 간 전이 유무를 예측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현재 임상중인 CARM1 억제 물질이 엑손 7을 가진 LRRFIP2를 발현하는 위암 세포에 치료효과가 높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엑손 7의 유무를 검사하여 치료하는 맞춤형 암 치료제 개발 가능성도 제시한 셈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광동제약, 모더나 2가백신 마케팅 나서

의료진 대상 제품정보 제공하기로

광동제약이 모더나와 손을 잡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2가 백신에 대한 정보 제공에 나선다. 모더나가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에 그치고 있는 2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광동제약은 최근 모더나와 ‘코로나19 2가 백신 파트너십 체결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광동제약은 모더나의 코로나19 2가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의 국내 의료진 대상 제품정보 제공을 담당하게 된다.

광동제약은 그간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구축한 영업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협약사항 이행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제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병의원 네트워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참여 경험 등을 통해 접종률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준에 맞춰 엄

격하게 관리해 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협업 효과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겨울철에 접어들며 코로나19의 7차 유행 우려가 높은 상태지만 모더나 2가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은 아직까지 전체 인구 대비 2.3%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달부터 화이자 BA.1.2가 백신, 화이자 BA.4·BA.5 2가 백신 등도 활용될 예정이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는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한 코로나19 변이 대응백신으로,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는 물론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폭넓고 우수한 중화항체 반응을 입증했다. 기존 백신(스파이크박스주) 투약군 대비 중화항체 생성률이 1.7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4차 접종(두 번째 추가 접종) 후 90일 추적 관찰 결과 이전 백신에 비해 부작용이 유사하거나 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 식자재왕 온 자영업자 위한 국물요리 3종

자영업자의파트너 식자재왕의 확장 브랜드 ‘식자재왕 온(on:溫)’이 첫 국물 요리 제품(사진)을 선보인다.

지난 9월 론칭한 국물 요리 전문 식자재 브랜드 식자재왕 온은 ‘식자재왕 온 뼈해장국’과 ‘식자재왕 온 순대국’, ‘식자재왕 온 사골우거지해장국’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제품은 고기, 야채, 육수 등 구성품이 별도 포장된 대용량 밀키트 타입으로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식당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국물을 대형 가마솥에서 전통 직화 방식으로 끓여 전문점의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식자재왕 온 뼈해장국’은 8.95kg(10~20인분), 830g(1~2인분) 2가지 용량으로 출시된다.

‘식자재왕 온 순대국’은 8kg(10~15인분) 제품으로, ‘식자재왕 온 사골우거지해장국’은 6kg(15~20인분) 제품으로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4일 (금)  
음력 : 10월 11일

수도권 날씨  
0 ~ 1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00 | 해질 / 17:31

연천 -4/10, 동두천 -3/11, 가평 -3/11, 파주 -4/10, 서울 0/11, 양평 -1/11, 인천 2/10, 수원 1/10, 용인 1/10, 평택 -1/10

백령도 5/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